

2 뉴스

중국인 유학생 대상 ‘위챗’ 환전사기 빈발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우리학교 중국인 유학생이 수수료 절감과 편리함을 이유로 은행이 아닌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했다가 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 학기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사례는 매 학기 4~5건이다. 이번 학기에도 등록금 4건, 세화원 기숙사비 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피해는 환치기 시도로 인해 발생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위챗 환전상에게 연락해 환전을 신청한다. 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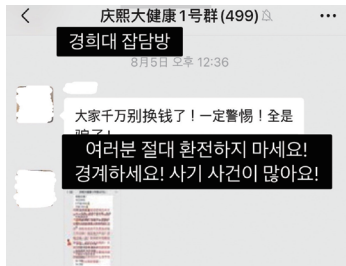
신청을 받은 환전상은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제3자가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전상은 환전 신청으로 받은 돈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다.

제 3자가 입금한 돈이 학교가 부여한 가상계좌에 들어왔고 학교 또한 등록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지만 해당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라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경찰이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하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학교가 수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등록금을 수취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등록 처리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1학기까지 학교는 피싱 사기를 당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한 번 더 내게끔 조치했고 해당 중국인 유학생은 등록금을 두 번 납부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또한 환전을 신청한 중국인 유학생 계좌로 제 3자의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환전을 신청한 중국인 유학생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해당 사례를 겪었다는 MAX XU(경영학 2020) 씨는 “몇 번의 환전 거래를 했던 SNS 환전상이 피싱 사기를 저지른 것 같다”며 “피해자의 신고로 내 통장이 동결됐고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위챗을 통한 환전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환전이 아닌 위챗 대리납부 방식으로 환전하는 이



유학생이 위챗에서 개인 환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모습이다. (사진=총유학생회 제공)

유엔 수수료 절감, 편리함, 한국 금융거래 지식 전무가 있다. 총유학생회 추이시엔(CUI XIYAN, 경제학 2021) 비상대책위원장은 “등록금같이 큰 액수를 환전할 때 대리납부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하면 수수료가 은행에 비해 덜 발생한다”며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대행업체를 통한 도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행에 대한 불안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생들이 특히나 위험하다”며 “중국에 있을 때 등록금을 입금해야 할

때도 있고 첫 학기다 보니 아무래도 등록금 납부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짜 환전상이 이러한 빈틈을 노린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고지서를 담당하는 학사지원팀 유지인 주임은 “위험성을 알리는 메일을 중국어 버전으로 유학생에게 보낸다”고 말했다. CUI XIYAN 회장 또한 “위챗에 환전 관련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저지하는 답글을 달고 있다”며 “환전업체에서 광고 요청도 들어오는데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등록금 수납을 담당하는 재무회계팀 박성구 과장은 “신입생이 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악용돼 지급정지 당한 학교 계좌는 은행에 일일이 이의제기를 신청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인 환전 수수료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 ‘철회’ 반복 “틀려서 철회한거 아냐”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서울】최정식(철학) 교수가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논란과 관련한 발언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히고도 이를 부정하는듯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모두 철회한다며 대학본부와 동문회에 철회서를 제출했다. “최정식은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 중에 얘기한 위안부 관련 발언을 모두 철회한다”며 “말한 내용은 저의 창작물이 아니라 남이 다 이야기해 놓은 것을 읽고 한 것이므로 제가 앞장서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습다”고 말했다. 또 “이제 조용히 잊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최 교수의 실언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그 당시에도 본인의 발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되자, 최 교수는 작년에 밝힌 입장 철회에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말한거라 내가 나서서 대변하는 것이 어색해서 발언을 취소한 것이다”라며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되거나 틀려서 철회한 것이 아니기에 사과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다시 한번 본인

의 철회서를 뒤집었다. 지난 5일 일본의 극우파를 대변한다고 알려진 산케이신문 계열 영자신문 ‘재팬포워드’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수업 중 발언과 위안부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한 인터뷰가 진정으로 철회한 것이 아닌 임기응변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가 보낸 철회서에 박민규(철학 1988) 동문회장은 “두 번의 철회에 대한 목적이 다른데 이유는 같다”며 “이런 태도는 경희학원 전체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서를 보냈음에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며 “지난 1년간의 발언, 철회, 반복, 재철회, 재반복의 모습은 동문회, 학생, 학교 당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 권오병 학무부총장은 “감사팀에서 이미 1차 감사 의견을 냈다”며 “곧 교무처에서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징계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족의 역사는 중요한 교과서이기에 그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많다”며 “이와 동떨어진 교육과 연구가 있다면 교수의 수업권보다 더 위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끼친 사업 1기 학생들이 못난이 채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양한 레시피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받았다. (사진=학생지원센터 제공)

끼친 2기 바른식습관 교육 진행

곽다운 기자 kkyu1109@khu.ac.kr

【서울】서울시의 후원과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의 주관으로 2023 청년 식생활 능력 향상 <끼친:끼니를 챙기는 키친(kitchen)> 사업 2기를 운영한다.

끼친 사업은 청년의 올바른 식생활, 특히 1인 자취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진행된다. 식재료 선택과 보관, 건강한 식단에 관한 이론 교육, 올바른 칼질법, 안전한 조리법, 다양한 레시피를 습득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실습에서는 못난이 채소와 유통기한 임박 식자재를 활용한다. 참여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우리학교 재학생 30명이다.

끼친 사업 학생대표 박예진(식품영양학 2021) 씨는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끼친 사업은 다음 달 9일부터 4주간 호텔관광대학 한식실에서 진행된다.